



국토교통부

보도참고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배포 일시	2023. 3. 3.(금)			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 김남균 (044-201-4207)	
		담당자	사무관	신익승 (044-201-4211)
			주무관	차시현 (044-201-4338)
보도일시	3. 3.(금) 10:00 이후 즉시보도 가능			

한-중 국제선, 코로나19 이전수준 회복 추진 합의 **- 3월 3일부터, 한·중 항공협정에 따라 증편 -**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3월 3일부터 코로나19 이전 한·중 정부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*에 따라 한-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.

* (항공 협정상 운수권) 양국 각 주 608회, 산둥성 및 하이난성은 자유화
(한-중 노선은 코로나19 확산前 주 1,100여회 운항했으며, 국제선 운항의 24%를 차지)

- 이번 증편 방안 합의는 ‘한-중 노선 증편제한 해제’ (중대본, 2.17.)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2월 이후 중국 민항총국(CAAC)과 한-중 국제선 복원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왔으며,
- 최근 양국간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, 방역규제에 따른 별도의 운항횟수 제한 없이 양국간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증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.

- 우선, 3월 중에는 인천-베이징, 인천-상하이, 인천-칭다오, 인천-옌지, 제주-상하이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이 예상되며,

	인천-베이징 (서우두, 다싱)	인천-상하이 (푸둥)	인천-칭다오	인천-옌지	제주-상하이
항공 협정상 공급력(운수권)	주 45회	주 56회	자유화	주 21회	한국 14 중국 자유화*
現 운항 횟수	주 2.25회	주 5회	주 11.5회	주 2회	-

* 제주공항은 '98년 이후 일방 자유화를 선언하여, 외항사는 운수권 관계없이 운항

** 공급력(운수권)은 한·중 각각 적용, 現운항 횟수는 양국 실적 합산

○ 그 밖의 노선에 대해서도 '23년 하계기간(3.26~10.28) 동안 순차적으로 증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,

○ 중국 출발 항공편의 국내 도착공항 일원화(인천)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항이 제한됐던, 국내 지방 공항-중국간 국제선도 순차적으로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.

* 운항을 중단했던 부산-엔지 노선(에어부산)은 3월 1일부터 운항을 재개 했으며, 제주-시안(진에어) 및 대구-엔지(티웨이 항공) 노선은 3월 16일부터 운항 재개할 계획

□ 향후 구체적인 증편일정은 각 항공사별 수요와, 중국 현지 공항의 조업 인력 등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*으로 진행될 예정이며,

* 3월중 증편전망: (2월말) 62회 → (3월2주) 80여회 → (3·4주) 110여회 → (5주) 200회 이상

○ 항공사별 자세한 운항 스케줄은 한-중 국제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별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“이번 증편방안 합의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양국 국민의 여객 수요와 기업간 비즈니스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”면서,

○ “차질 없는 한-중 국제선 증편을 통해, 최근 침체된 내수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